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지연정** · 김병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경험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를 밝히는 데 두었다. 적응과 일탈은 매우 상반된 개념이지만 환경적 요인이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 심화된 형태의 적응과 일탈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에 적응과 일탈을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일탈과 적응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의 적응과 일탈에 대한 경험적 의미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적응과 일탈을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적 연구를 통하여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적응과 일탈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인문계 고등학생 1~3학년 남녀 각 2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는 3개의 핵심주제 '어정정한 일상생활', '빠딱하고 불안한 사회', '노력과 희망사이에서 느끼는 소외'로 정리 될 수 있었다. 둘째, 핵심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8개의 범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뭉든 적당히 해야 함',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의 갈등', '사회적 현실인식을 통한 한계설정',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 '죽으라고 노력해도 끝없는 상황', '진로선택에 대한 무력감', '그래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어 봄'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고등학생, 일상생활, 적응, 일탈, 경험, 질적 연구

* 본 논문은 지연정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시간강사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kimbj@yu.ac.kr

I. 서 론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대 다수는 생활의 대부분을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에 매진한다. 이는 대학입시에서의 성공과 좋은 학벌이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신분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성적에 밀리고 성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오해섭 외, 2017). 청소년 4명 중 1명은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한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이는 그동안의 ‘교육의 붕괴’, ‘비정상화 교육’과 같이 교육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행동들이 표면적으로는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연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우리 삶의 토대 이면서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특별한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누적된 미세한 작용들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 현재화한 것에 불과하다.

일상생활 이론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의사전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 웃음과 눈물, 고난과 환희 등으로 점철된 실생활 세계의 논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다(김정근, 장덕현, 1999). 이러한 일상생활은 대개 반복적이고 단순하지만 여러 생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인간은 저마다 자신만의 생활세계를 살게 되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아래 여러 가지의 배움을 거치며 일상생활을 구축해 나간다. 최근까지 청소년의 일상생활 연구는 학교 밖 생활에서 노는 아이들의 또래문화(오경희, 한대동, 2014),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박용성, 2015; 주영신, 이민창, 2008),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정체화(김혜영, 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조경미, 강희숙, 2008), 여고생의 하루에 관한 연구(지연정, 김병주, 2016)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도적·규범적 틀에서 사회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들과 특정대상의 일상생활을 밝히는 데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적응은 어느 발달 시기이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에

따른 혼란, 신체적 변화의 급격함,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적응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예견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구본용, 2012; Crosnoe & Elder, 2004),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옥주, 2003)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응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홍지수, 2009). 그러나 청소년은 불안한 존재로서 허용과 자율보다는 금지나 강요, 타율이라는 담론 속에서 다루어지며, 일탈과 비행은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한준상, 1989)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적응과 일탈은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성장에 중요한 관건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먼저 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사회적 지지로서 부모와 교사, 또래 등 관계의 영향(구본용, 2012; 김정호, 2015; 김지현, 2013; 성선진, 2010; 정현태, 2017; 홍명숙, 2017), 학업성취도(천석우, 2009), 학교문화와 학교환경(김계정, 2014; 박종호, 2013), 스트레스(최은희, 2016),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김선미, 2018; 성선진, 2010) 등이 있다. 일탈은 애착이 있는 타자에 대한 애정적인 유대관계(홍봉선, 남미애, 2000), 스트레스(김정호, 이기홍, 2016), 학생문화(김석연, 2003), 교육적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8) 등의 다양한 요인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적응과 일탈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적응과 일탈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로부터 서로 유사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며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계문제 등은 일탈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적응과 일탈은 매우 상반된 개념이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 심화된 형태의 적응과 일탈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적응과 일탈에 대한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적응과 일탈을 구분하여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시각은 학생다움을 대표하는 모범생과 문제 학생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일탈과 적응의 역동적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고등학생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부합하지 못할 경우,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일탈적

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등학생의 일탈과 적응 행위를 기성세대의 도덕적·윤리적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에 관한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심층구조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위치시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교육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의 어떠한 경험을 통해 적응과 일탈행위를 반복적이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내는지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의 적응과 일탈에 대한 경험적 의미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적응과 일탈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적 연구를 통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K시 지역 내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남녀 각 2명씩 총 12명을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했다.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에 대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적응과 일탈의 복합적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적응의 선정기준은 학교 교사와 학생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지각이나

결석이 없고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일탈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정하였다. 일탈행동은 음주, 흡연, 음란물, 자살충동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가명	성별/학년	등급	설립유형	학교유형	일탈행동
1	민수	남/1	3	공립	남고	음주, 음란물, 도박
2	명훈	남/1	1	사립	남고	흡연, 음주
3	강인	남/2	1	사립	남녀공학	흡연, 음주, 가출, 차량훼손
4	동혁	남/2	1	공립	남녀공학	음주, 음란물, 자해
5	진성	남/3	2	공립	남녀공학	흡연, 음주, 음란물, 뺑뺑기
6	태호	남/3	3	공립	남고	흡연, 음주, 음란물
7	가영	여/1	1	사립	여고	음주, 자살충동
8	소민	여/1	3	공립	여고	흡연, 음주, 게임중독
9	유정	여/2	1	사립	남녀공학	음주, 도박
10	해진	여/2	3	사립	여고	흡연, 음주, 가출, 자해
11	민희	여/3	3	공립	남녀공학	흡연, 음주, 자해
12	지원	여/3	4	공립	여고	흡연, 음주, 또래괴롭힘

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계획과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합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특히 참여자가 미성년인관계로 부모의 허락과 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1 개인면담으로 3회에 걸쳐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연구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고, 적응과 일탈을 하는 이유, 적응과 일탈이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Colby의 Werner와 Schoepfle(1987)의 원인연쇄 분석법(casual chai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확인하는 작업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좋은대학(원인)→적응(결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원인)→일탈(결과), 적응(원인)→적당한 일탈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결과), 일탈(원인)→또다시 적응하기 위한 기제(결과), 즉 원인과 결과를, 결과와 원인에 대한 현상에 왜냐하면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원인연쇄 분석은 어떤 현상의 결과들이 왜,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연결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담이 끝나면 즉시 전사 작업을 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의문점, 궁금한 점 등을 체크하여 그다음 면담에서 보충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인식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전지를 이용하여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고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나가듯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적응과 일탈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개념과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이때 생성된 개념들을 토대로 구성된 범주화에서 반복적인 의미를 찾고 의미를 확인하여 각각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합된 자료를 다시 범주화하고 범주화된 자료를 원자료와 반복

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삭제되거나 추가함으로써 통합된 핵심주제화를 구성하였다. 핵심주제화된 자료를 재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작업을 거치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인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노출과 비밀유지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정보 등은 가명으로 처리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본문내용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전 면접을 통해 승낙과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문이 들 경우에는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오류를 직접 만나 검토 받는 연구 참여자 확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통해 연구의 시작시점부터 결과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료와 감수자를 통해 검증을 받아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12명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286개, 이를 다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8개의 범주와 3개의 핵심주제로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의 적응과 일탈경험의 의미와 구성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고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

핵심주제	범주	의미
어정쩡한 일상생활	어쩔 수 없는 상황	대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학생에 대한 규칙이 숨 막힘
	뒤편 적당히 해야 함	친구와 경쟁자 사이에서의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 뒤에서는 날라리 어쩌다 한 번씩의 일탈행동에 정당성부여
빠딱하고 불안한 사회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의 갈등	통제되는, 통제해야만 하는 감정과 신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의미한 외침
	사회적 현실인식을 통한 한계설정	대학가서 원하는 것 다 해
		세상의 관심보다는 공부가 먼저
노력과 희망사이에서 느끼는 소외	죽으라고 노력해도 끝없는 상황	꿈을 꿀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원망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
	진로선택에 대한 무력감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길 원함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
	그래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어 봄	누구를 위한 공부인지 모름
		노력의 결과에 따른 죄책감 및 자괴감
	희망사이에서 느끼는 소외	적성보다는 대학명함이나 이름이 중요
		교사와 부모가 시키는대로
		복잡한 대학전형은 복궤복
		학교에서의 낙오는 사회에서도 낙오자
		어느 정도는 희망을 안고 가야할 세상

1. 어정쩡한 일상생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일을 의무로 받아들이면서도 언제나 학교에 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회의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회의감은 고등학생들이 어정쩡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학생의 적응적 모습과 가끔씩 일탈을 감행하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어쩔 수 없는 상황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억압하는 숨 막히는 규칙과 친구와 경쟁해야 하는 그 상황이 가장 힘든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유정) 새벽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잠결에 비몽사몽 그래도 언제나 학교에 와있는 나를 발견하면 아~오늘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

강인) 대학 가려면 고딩(고등학생)은 아파도 학교에 쳐 박혀 죽으라는 관례가...

해진) 효율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로봇에 불과해지고 그 효율이라는 틀은 늘 좁아터져서 순간 빠져나오고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시한폭탄을 하나씩 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들고 다들 학교에 있는 거죠.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학교에 가고 때로는 학교 밖 세상을 향해 탈출을 꿈꾸고 시도하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일상생활은 늘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은 아파도 학교에서 죽어야한다는 사실적인 학교의 관례에 의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일탈에 대한 선망과 암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효율적인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소민) 친구가 아니라 원수(원수)라니까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속마음)들킬까봐 불안하고 걱정되고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친구가 아닌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지같은...

해진) 눈이 벌게 가지고 너도나도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어떡해요. 현실이 그런 걸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지만 되는 세상이라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들은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의 소중함을 아يا가고 있었다. 그러나 성적이 매겨지

는 경쟁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순간 돌변하는 불안과 공격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소름 끼치고 두렵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밟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을 친구와 원수를 왔다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는 경쟁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려는 선발중심의 현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뭐든 적당히 해야 함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지각과 결석 없이 학교에 가고 부모와 교사 몰래 적당히 일탈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적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특이한 점은 참여자가 가출을 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명훈) 이번 고비(시험)만 넘기고 실컷 놀아줘야지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면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이나 어디 처 박혀 죽을지도 몰라요. 다음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한 번씩 아주 가끔은 몰래몰래 쉬어가는 타임정도...

동혁) 학교 땡땡이 안치고 적당히 공부하면 그게 적응이지 않나요. 그러다 적당히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놀고(일탈하고) 다시 돌아오고...

지원) 폰대(선생님)가 보는 앞에서는 인사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처럼 굴고 뒤에 서 일(일탈적인 행동)치면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속이 시원한 적당히만 하면 문제없어요.

그래서 참여자들은 부모와 교사의 시선에서는 적응하는 모범생인 척하는 행동을 보이고, 시선을 피해 가끔씩 일탈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이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기엔 적당히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3)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의 갈등

고등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의 경계와도 맞닿아 있다. 현대의 가

속화된 발달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서 사회적 사건 및 이슈와 같은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인식은 고등학생들이 성인화
되는 속도를 극대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학
생과 성인의 경계선상에서 복합된 행동 특성과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민수) 중학교 때부터 니들이 초딩도 아니고 이제는 중딩도 아니고 늘 다 큰 것이
그러면서... 뭘 말만하면 아직 어린 게 안 돼, 안 돼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안돼...

민희) 남녀공학에서 연애금지가 말이 되나여.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피 끓는데
그게 우리 맘대로 조절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성) 충분히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적 발언
을 해도 지금은 공부할 때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 없다고...

참여자들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였
지만 아직은 학생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공부이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감정은 물론 많
은 것이 억압되어 갈등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가 상황
에 따라서 이제 다 컸으니, 아직 어린 것이라는 비일관적 태도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
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태호) 아침저녁으로 별떡별떡 서(성기)버리니깐 죽을 맛이에요. 당연한 신체적 현
상인데 꼭 죄짓는 기분이 들고...

지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이런 고민들이 머리
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정작 돌아오는 답이라곤 공부...

진성) 무슨 말만 하면 대학가서 해, 아직 어리니까, 그래봐야 겨우 몇달만 있음 대
학생인데...

이러한 혼란은 자연스러운 신체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외면해야 하는 정체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는 공부이
외의 활동과 생각은 대학가서라는 유예현상이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예현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민이나 가치관에 대한 대화를 주위사람들과 시도하지만 언제나 끝은 ‘공부’라는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다.

2. 뼈뺏하고 불안한 사회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미래적 삶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경제적 침체 현상과 연일 터지는 사건·사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불안을 내면화시키고 있었다.

1) 사회적 현실인식을 통한 한계설정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도전에 서툴지만 자신의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벽 앞에서 현실의 냉혹함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어림잡아 놓고 있었다.

동혁) 제가 공부는 좀 하잖아요. 근데 인서울 간다해도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 올 장학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들 고만고만(성적)한데...

가영)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해봐야 을박에 더 될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저 평범하게 살기도 어려운 세상...

진성)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니 나는 흙수저라 기껏 죽으라 공부해도 내가 위치할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자신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또래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여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버겁기만 하고, 현실은 평범

하게 살아가는 것마저도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해진) 대학 나와도 취준생하면서 졸업유예하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실업자 우리는 미래의 실업자잖아요. 근데도 대학이 뭐라고 대학대학에 목숨 걸어야 하는지...

유정) 메르스... 세월호 사고는 또 어땠고요, (학교행사)다 취소되고 이러다 그냥 공부만 하다가 죽는 건 아닌지 그래도 놀다 죽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이러한 사회적 한계와 불안은 자신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적당히 놀아야하는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사회경제적 사건과 이슈들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삶에 대해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성장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참여자들은 불공평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기성세대에 의해서 형성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 자신이나 또래들이 학업성취 부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 학교의 교사나 부모에 의해 통제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거나 무마되는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진술하였다.

명훈) 제가 담배 좀 판다고 술 좀 마신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공부를 잘하니깐 그냥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겠지 하고...

강인) 편애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쌤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그걸 믿을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뻔히 눈에 다 보이는데...

민수) 중간쯤 가는 애들은 교사나 부모들한테 관심 밖의 사람... 인간이 인간으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거나 부자거나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이도저도 아닌... 인성이 중요하네 어찌고 저찌고 말로만...

똑같은 일탈행동이라도 학업성취에 따라서 모범생과 문제 학생으로 구분되는 상황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대부분도 적응과 일탈적 행동을 단순히 학업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릴 적 경험에서부터 공부를 잘 하면 부모나 교사, 또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인성의 중요함을 전달하면서도 정작 기성세대의 모습에서는 성적순에 따른 편애, 인간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등의 말과 행동이 부합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편애 받지 않기 위해 학업성취에 열을 올리고, 외모,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선입견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영) 위로 갈수록 더 구차하고 치사하고 대놓고 거짓말에 사기 치는 세상인데 우리가 뼈뺏하게 세상을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소민) 갑자기 역사를 넣는다, 하나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툴하고 제도만...

유정) 신체적 신장을 위해서 체육시간을 늘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수면부족으로 몸도 마음도 멍한데 뭐라고 하면 뭘 수 있나요. 잠을 못자서 구역질날라 하데...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적, 정치적 대안은 이들의 혼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무용지물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학생들이 세상을 뼈뺏하고 불안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3. 노력과 희망사이에서 느끼는 소외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높은 학업성취와 좋은 대학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분히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1) 죽으라고 노력해도 끝없는 상황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으로 힘들어하였고, 높은 성적에도 만족하기보다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노력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었다.

민희) 내가 왜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해야지 좋은 대학 갈려면, 또 그렇다고 정답도 없고 해야지 별수 없잖아요.

지원) 다들 죽으라고 공부하니 나도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이제는 내놓고 현수막에 누구 이름 올라올까나 한번 올려보자 죽으라고 젓 먹던 힘까지 해...

동혁) 좋은 대학가면 내가 좋지 부모가 좋냐고 하시지만 초딩부터 아니 어찌면 그 이전부터 우리는 먼저 기었니, 걸었니, 말했니, 읽었니, 몇 등이니 이런 비교 때문에...

죽으라고 노력해도 치열한 경쟁은 더 높은 학업성취를 원하고 있었고, 좋은 대학이라는 수단적 목표와 남과의 비교에서 우위 차지, 사회적인 구속력에 의해 학생들의 노력은 자신의 존재와 그 노력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소민) 책상에 쪽잠자면서 별떡 일어나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뭘 위해서 성공인지 행복인지 그게 뭐라고 지금 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데...

가영)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나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나 자신이 멍고 바보 같고...

태호) 뺨때기 때려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란 인간은 참 부족하구나...

노력하는 태도에 대한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현실은 무의미해지고 스스로 노력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부정적 감정과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죄책감과 자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진로선택에 대한 무력감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교사와 부모에게 어필해보지만 직업적 전망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강인) 저는 철학공부를 하고 싶은데 쌤도 엄마도 밥벌어먹을 일있냐며 그래서 취업은 택도 없다고 절대 반대하시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진성) 그 대학은 안 돼 인지도가 낮아서 나중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00대학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명훈) 교사나 공무원이 짱이라고 사범대니 행정학 쪽으로 선택하라고 엄마가 시키는대로 하면 실패확률이 적다나 어른 말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자신의 진로선택과는 무관한 인지도 있는 대학, 취업 잘 되는 과, 부모와 교사의 선택에 의지하여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여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로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현실은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갈등상황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진성) 대학가면 재수나 반수할라구요. 지금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때는 다해도 된다 했으니 뭐라 못하겠죠.

태호)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학)면접 가서 껴안치고 엉망으로 불라고요.

이처럼 참여자들은 교사와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대학에 입학하여 재수나 반수할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거나, 대학면접을 망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정) 수시도 정시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도 준비해야 하고 하나만 준비하면 불안하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으면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민수) 성적이 낮아도 잘만 하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선배들의 경험이나 누구집 애는 이렇게 대학갔니 뭐니 정말 복권복 당첨도 아니고(대학이)...

복잡한 대학입학전형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무력감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교마다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인해서 어떻게 원서를 접수하는가에 따른

복결복식의 합격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입학전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버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3) 그래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어 봄

참여 학생들은 경쟁의 압박감과 노력의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 자락의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해진) 이리니저러니 해도 학교에서 낙오되면 사회에서도 낙오자일 뿐인데 찍히면 낙인돼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력 해서 좋은 대학은 못가더라도요, 지방의 국립대라도 뭐 안 되면 그때 가서 자살하든가 살든가...

민희)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디라도 소속돼야 하잖아요. 그게 대학이든 직장이든...

지원) 지금까지 노력하고 품었던... 물거품이 되더라도 아까워서 끝까지 가보는 거죠. 죽기 아님 까무러치기죠 뭐.

학생들이 적응과 일탈행동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속적인 일탈을 못하는 이유는 낙오자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죽으라고 노력하고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에 대한 희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강인) 힘들다고 포기하면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힘들어도 참아보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야 나 자신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고...

동혁) 세상이 안 변한다고 남탓만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희망은 한 번 더 용기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자신들이기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삶의 잠재적인 가치에 대해 더 깊고 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적응과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입과 해결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은 경쟁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순응하는 적응적 태도를 보이지만 통제된 삶으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적응과 일탈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어정쩡한 일상생활은 좋은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학생의 신분에서 소외되거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일탈행위를 통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는 적당한 적응과 일탈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무조건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이 속에 존재하는 적응과 일탈의 역동성 자체를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고(천석우, 2009), 일탈행동과 교육적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8)가 연관되어 있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탈과 적응이 상반되어있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적응과 일탈의 모순된 상황을 모색할 수 있는 제 3의 교육영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상중하 순위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누적된 스트레스 등 개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탈행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따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일으킨 일탈행동을 부모와 교사가 미흡하게 대처했던 경험, 또래관계를 통한 동조현상, 시험으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 세월호 사고와 같

은 사회적 불안은 일탈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 교육, 사회적 불안에 대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장, 학생 스스로도 일상생활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들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더 좋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면서 느끼는 열등감, 적대감, 걱정, 불안은 일탈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관계는 적응(구본용, 2012; 김정호, 2015; 김지현, 2013; 정현태, 2017; 홍명숙, 2017)을 향상시키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일탈행동(홍봉선, 남미애, 2000)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 고등학생들에게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나친 경쟁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황폐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 영향(Kohn, 1986)을 미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적인 학교문화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열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의 변화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부모교육,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부모,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과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흡연, 음주, 성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전달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일탈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현실인식과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과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를 밝힌 Durkheim (1965)은 교육을 아직 사회생활에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성세대와 성장세대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기성세대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육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비일관적 태도나 일탈을 통해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면 흡연, 음주, 또래괴롭힘, 도벽정도의 일탈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신념을 나타내는 결과는 기성세대의 사회화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높은 학생을 길러내는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단순히 지식의 학습자로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사회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문제는 곧 사회의 건강한 모습과 직결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공정성과 모범적인 모습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성장세대에게 모델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세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내용을 스스로 소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죽으라고 열심히 무한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노력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분히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도 매우 높으며(김의철, 박영신, 2008), 교육열을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서근원, 200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신체를 해하는 자해부터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괴감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의 경험은 노력의 부작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사회가 노력만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노력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 안 된다. 가정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은 학생의 성장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할 수 있으며(김광혁, 2006), 상징 폭력으로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는 선우현(2011)의 철학적 확인 사실은 문화자본의 부족으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불리할 수 있다(김현주, 2007; 신원영, 강현아, 2008). 이렇듯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학업성취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참여자들이 잘난 또래, 가진 사람, 자신은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리 노력의 긍정적인 가치에도 그 노력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면 노력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래도 한 자락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노력의 의미가 단순한 학업적 성취나 성공으로 누군가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한걸음씩 발전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한계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과제에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 비평준화 인문계 고등학생들로 특목고나 전문계, 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고등학교, 혹은 대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어져서 논의의 폭이 다양화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경험 중 적응과 일탈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교사나 부모의 관점에서는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고등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본용 (2012).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347-373.
- 김경호, 이기홍 (2016). 청소년의 사회관계, 스트레스 및 일탈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합적 요인들에 의한 설명을 제안하며. **한국인구학**, 39(3), 83-105.
- 김계정 (2014).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과 학교문화의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혁 (2006).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195-217.
- 김석연 (2003).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미 (2018).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청소년의 자아감, 대인관계,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념적 모형의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 김정근, 장덕현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55-75.
- 김정호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생-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정서지능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사회적지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주 (2007).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다중상호 작용방식. **한국사회학**, 41(6), 171-203.
- 김혜영 (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 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23-253.
- 박용성 (2015).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효 (2013). 학교 환경과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탐색. **열린교육연구**, 21(1), 101-128.
- 서근원 (2008).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 인류학연구**, 11(1), 177-201.
- 선우현 (2011). 상징 폭력으로서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없음에 대한 철학적 확인 사실: 학교 및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 1-43.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오경희, 한대동 (2014). 학교 밖 생활에서의 ‘노는 아이들’의 또래문화형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초등-중학교 전이에서. **초등교육연구**, 27(4), 53-76.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윤혜지, 정재훈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연구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연구보고 17-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옥주 (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정현태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경미, 강희숙 (2008). 보호관찰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4), 203-222.
- 주영신, 이민창 (2008).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5-31.
- 지연정, 김병주 (2016). 여고생의 하루: 중소도시 여고생 일상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동아인문학**, 35, 455-489.
- 천석우 (2009). **교사 리더십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희 (2016).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상태의 매개효과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2018. 4. 26.
- 한준상 (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명숙 (2017). **청소년의 관계형성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봉선, 남미애 (2000).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홍지수 (2009).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rosnoe, R., & Elder, G. H. (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5), 22-34.
- Durkheim, E. (1965).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 Kohn, A. (1986).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이영노 역(2009). **경쟁에 반대한다**. 서울: 산난.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s and best friendships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2), 151-165.
- Werner, O., & Schoepfle, G. M. (1987). *Systematic fieldwork*.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and deviance of high school students as experienced in their daily lives

Ji, Yeonjeong* · Kim, Byoung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ou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an in-depth manner and to explain the meaning of adaptation and deviation in their daily liv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otal of 12 students were interviewed by two boys and girls for each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in the humanities high schools who repeatedly presented adaptation and deviation from daily life.

These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nd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d. First, the meaning of adaptation and deviation that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their daily lives appeared through three core themes such as 'unconvincing daily life', 'perverse society' and 'isolated feeling between effort and hope'. Second, the eight categories detailed on these core themes are 'unavoidable situations', 'everything in moderation', 'conflict on a vague frontier', 'set limits through recognition of social reality',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older generation', 'an endless situation in spite of one's efforts to die', 'a sense of helplessness in choosing one's career path', and 'still with a ray of ho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earched for a realistic solution to these issues and of ways to intervene so that high school students may lead happier lives and adapt to life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 daily life, adaptation, deviation, experience, and quality study

투고일: 2018. 5. 30,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Yeungnam University